



남원시, 9월 말까지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남원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주소 정보시설 4만여 개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도로명주소법 제26조에 의거 주소 사용 불편 해소 및 시설물 훼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시설물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모든 시설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 안내판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위치·규격 등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태블릿PC를 이용한 '스마트 KAS'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촬영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권해정 민원과장은 "주소정보 시설이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장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비전대, 인재개발원서 드론 교육 재능기부

전주비전대학교는(총장 우병훈) 23~24일 이틀간 전북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군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적토목학과 이근상 교수와 전공심화과정 1학년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재능 기부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드론의 기본 이해 및 동작 원리 △드론 조종, 사진 및 영상 촬영 △드론 촬영영상을 통한 동영상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재능기부에 나선 김유진 학생은 "재능기부를 통해 대학에서 배운 여러 전공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드론 교육을 지도한 이근상 교수는 "서비스러닝은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대학의 역량을 공공성 확대에 힘쓰고자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경여고,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전원 수상

진경여자고등학교(교장 조정곤)가 '2024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출전해 4년 연속 참가자 전원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지난 24일 진경여고에 따르면 17~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총 19명이 참가해 전원 수상을 했다.

(사)한국조리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는 국내 단일요리대회 중 최대 규모로 올해 4,600여 명이 참가했다.

진경여고에서는 조리제빵과 및 카페디저트과 학생 19명이 국제요리경연, 테이블서비스경연, 버리스타경연, 제과전시경연, 세계요리전시경연 5개 종목에 출전했다.

그 결과 국제요리경연 종목에서 김다영, 김아현, 김아리 학생이 환경부장관상을 스테이블서비스경연 종목에서 김은혜, 백아라, 백지현 학생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버리스타경연 종목에서 김희소, 박현영, 신지민, 고소희, 윤미정, 윤채원 △제과전시경연 종목에서 윤이슬, 정예빈, 최성경, 유채원, 이효린 △세계요리경연 종목에서 김소은, 김하은, 박소원, 유채원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정곤 교장은 "학생과 지도교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회를 준비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5월의 햇살가득 행복마실'

남원시보건소, 장애인 봄 나들이... 이용자·보호자 등 62명 지리산 역사문화관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24일, 재활운동실 이용자와 보호자 등 62명과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역사문화관으로 봄 나들이 행사인 '5월의 햇살가득 행복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의료원 공공의료팀과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인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자, 직원 등 1:1 안전요원을 동반해 안심하고 지리산의 역사와 인문 지리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녹음이 우거진 자연속에서 힐링 시간을 가져, 평소 장애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참여자들은 햇살을 맞아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즐겁게 어울리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지역장애인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운영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사업 △장애인인과 가족들의 자조모임 운영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및 장애 예방교실 운영△장애인 이마용 봉사 및 건강상담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좋은 것은 나누고 부족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이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공원 서부지역본부, '바다의 시작' 캠페인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본부장 박영준)는 지난 24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부안군 변산면)에서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정화활동 '바다의 시작'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및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기관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여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내 우수관 내·외부의 담배꽂 등 쓰레기, 낙엽 등을 제거하고 우수관 바다에 바다의 시작 캠페인 문구와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지난 3월 18일 양 기관의 업무협약 이후 첫 공동협력사업으로, 양 기관은 바다의 시작 캠페인을 기점으로 서부지역본부 관할 국립공원의 보전·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은 "이번 바다의 시작 캠페인,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원인 바다와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서·남해안 국립공원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1회 순창군지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성료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지회장 김용식)가 주관하는 제1회 순창군지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24일 순창군 유등면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 신장이 순창군의회의장,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간단한 장비와 저렴한 경비로 작은 부지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최근 순창군도 회원 수가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순창군은 제1회 순창군지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위해 보조금을 대한노인회순창군지회에 지원해 대회 개최에 힘을 보탰다.

이날 대회에서 김용식 지회장은 "이번 첫 번째 파크골프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최영일 순창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승부도 중요하지만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1회 지회장배 파크골프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골프 실력을 맘껏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순창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편 군은 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인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등면 섬진강체육공원에 1만7,164㎡(5,200평) 규모의 경기장을 조성하고 있고, 쌍치면 금정체육공원에도 1만 6,214㎡(4,900평)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섬진강파크골프장이, 12월에는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이 계획대로 준공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보다 쾌적하고 넓은 장소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드림스타트, 2차 슈퍼비전·부모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드림스타트가 지난 24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와 양육자에게 필요한 양육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슈퍼비전 및 양육자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슈퍼비전은 위기가동 가정의 사례개입 방향과 사례관리 추진 전반에 대해 외부 슈퍼바이저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으로 드림스타트 담당 공무원과 이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슈퍼비전에는 외부 슈퍼바이저인 전주대학교 김광혁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개입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해 다양한 개입방법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자문을 받았다.

또 이와 연계해 부모교육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아동 양육자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신체와 두뇌 발달'이라는 주제로 슬기로운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녀의 양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의 건강한 신체 및 두뇌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역할, 양육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에 참여한 양육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더불어 아로마테라피 강사(김효신)가 재능기부를 통해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에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테라피를 통해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녀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은 "이번 슈퍼비전과 부모교육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슈퍼비전과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농업인 행복콜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공헌활동 추진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농촌사랑 현장봉사단 발대식과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콜센터 복지서비스 등록 관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실천 주거환경 개선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된 본 사업은 선운산농협 관내에서 선정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대상으로, 농협 중앙회 현장봉사단,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선운산농협의 공동후원으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의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농협중앙회 사회공헌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협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국의 고령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통해 건강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는 복지서비스이다. 선운산농협은 관내 176명이 행복콜센터 대상농가로 등록되어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 현장에 함께한 김기욱 조합장은 "앞으로도 선운산 농협은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중심으로 고령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민원과, 덕과면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

남원시 민원과(과장 권해정) 직원들은 지난 23일 덕과면(면장 서지호) 직원들과 덕과면 추산마을 배 재배 과수원에서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공무원들은 열매 숙아내기 작업(적과)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농장주 변재찬씨는 "일손이 매우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올해 풍년 농사가 될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으며, 서지호 면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해정 민원과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숙지황 판매소비 촉진 프로모션' 성료

정읍시가 지역 내 숙지황 사용 경제체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숙지황 판매소비촉진 프로모션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시는 지난달 4월 16일부터 한달 간 정읍의 특산물인 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숙지황(20kg 단위) 구입비의 약 2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판매 프로모션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경제체가 참여해 사업비(1700만원) 조 기 소진, 프로모션 종료일보다 빠른 지난 14일 마감됐다.

프로모션에 참여한 배모씨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정읍 생화차를 받고 찾아주시는 소비자들에게 정읍지황으로 만든 생화차를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숙지황을 사용하는 경영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프로모션이 성황리에 마감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JB미래포럼, 김제시 고향사랑기부 5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지난 24일 정읍 JB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JB미래포럼은 지난 2017년 1월 19일 전북 출신 중소기업과 전북 출신의 각 방면에서 활동중인 신진직인간의 융합과 소통을 장을 마련해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발족한 포럼이며, 상호 발전을 위해 격려제 공부모임과 정기적 친목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정읍시에 500만 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김제시, 내년에는 남원시 등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특히 JB미래포럼 회원 중 김제가 고향인 김홍규, 유인수, 기호성, 조귀연 회장 및 조봉환 대표가 각각 100만원씩을 기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치매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과 '청년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